

금요 양성 2025년 2월 28일

단위 형제와 나누시오

태양 형제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

2025년에 우리는 태양 형제의 노래 800주년을 기념합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찬가에 나타난 프란시스 성인이 사용했던 자신의 용어들을 그대로 제시해 봅니다. 찬가는 성인의 병환의 마지막 무렵이었던 1225년에 지어졌는데, 그 첫 부분에서, 프란시스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0절과 11절은, 아씨시가 정치와 종교 당국간에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첨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죽음 바로 직전에, 그는 “육체의 죽음 자매”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며 두개의 절을 추가하였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 (프란치스칸 원천 1 에 있는 번역본 사용)

¹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목시 4:9 목시시 4:11

²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³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토빗 8:7
그 가운데 각별히 주님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옵고, 그래서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e

⁴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⁵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s시편 148:3
당신께서는 빛 맑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a

⁶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저들로써 당신 피조물을 기르시나이다.

⁷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시편 148:4 시편 148:5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⁸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다니 3:66
그러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시편78:14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⁹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다니3:74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 주나이다. 시편 104:13 시편 104:14

¹⁰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마태 6:12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b

¹¹ 평화속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¹²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살아 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c

¹³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번째 죽음 ^{목시 2:11 목시 20:6} 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d

¹⁴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목시시 3:85}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document/bx4700-f6f722-1999/francis_of_assis_early_documents_-_the_saint/1999-00-00?pageNo=113

태양의 노래를 읽은 후에, 다시 돌아가 참조로 주어진 성서 말씀을 찾아 읽으시오. 그리고 프란시스가 성서 지식에 얼마나 정통하고 있었는지 느껴보시오.

+ 성서가 당신의 매일 생활에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회칙 42조) 산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찬가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프란시스 성인의 사랑을 말해 줍니다.

+글라라 성녀의 “응시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닦으라” 라는 가르침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피조물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피조물과 당신의 관계는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찬가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으시오.

+가족, 직장, 공동체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 당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 10절은 참된 기쁨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이야기와 이 찬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2절, 13절은 삶의 끝자락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맞게되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

+ 1978 회칙의 서문, 특히 “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을 다시 읽어 보시오. 참회와 회개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